

##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에게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가족이 추석 명절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보내셨기를 기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지난 7월 16일 이곳 시드니에서 자이온커뮤니티처치(자이온CC) 설립 예배를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 중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축하하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한 16명의 지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의 숙식을 저희가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시드니의 물가를 감안하면 16명의 숙식비가 1,200만 원을 넘어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손님들이 오시는 바로 그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십일조의 일부를 보내주도록 하셨는데, 손님을 치르고 난 후 정산해보니 보내주신 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현재 자이온CC는 매주 은혜 가운데 모이고 있으며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몇 가정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민족 청년 그룹이 영어성경공부로 모이고 있는데, 장차 이 모임이 영어권 예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자이온공동체의 주중 훈련 과정으로 “초대교회 알아가기” 온라인 스쿨이 9-10월에 걸쳐 6주간 진행 중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스쿨을 매년 2-3차례 진행하여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이온CC의 홈페이지를 현재 구상 중이며, 유튜브에서 “자이온커뮤니티처치”를 검색하시면 자이온CC 채널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일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9월 3-12일 사역 차 C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 선교단체에 있을 때 15년간 함께 사역하던 팀이 간곡히 부탁을 해와서 부득불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관계로 이전과 달리 주일 밤 비행기로 월요일 새벽에 B시에 도착하여 당일 오전부터 사흘간 곧바로 사역을 진행한 후, G성의 수도로 현지 사역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하여 몸은 많이 피곤했으나 늘 그러하듯 C국의 사역자들의 헌신을 보는 것은 마음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한 팀의 후원으로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 2001년 이후 2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주께서 보호해주시고 속히 고향인 C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성 방문 중 현지 자원사역자의 남편 소유의 아트갤러리를 방문할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그 도시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건축가이자 조각가입니다. 이분의 갤러리 작품 중 제가 충격을 받은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이 작품은 과거 C국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C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했다는 사실만 알지 그 상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1자녀를 둔 모든 가임기 여성은 1년에 4차례 의무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았고, 임신이라는 판정이 나오



는 순간 곧바로 병원으로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여인들의 한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제게 직접 들려준 말을 인용합니다. “당시 강제로 낙태를 당한 여인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품 곳곳에 쥐를 배치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쥐들이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번식하며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낌과 함께 C국에서 이런 반체제적 작품을 전시해도 괜찮은지 오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기도편지에서 차량 사고 소식과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상대로 17년 간 25만 킬로미터를 뒀던 저의 차량은 최종적으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차가 사고가 난 직후 제가 화요일마다 참석하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권사님의 남편께 건강보험사에서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분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도 원천징수 형태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 납부한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었고 그 전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돈이 거의 4만 불에 달했고, 평소에 테슬라 차량을 간절히 원했던 권사님의 남편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주신 것으로 믿고 바로 테슬라 회사에 전화하여 차량 구입을 문의하니 놀랍게도 불과 2-3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이 몰던 차량을 아내인 권사님에게 주고 권사님이 몰던 혼다 CR-V를 저희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불과 10만 킬로미터밖에 타지 않아서 기존의 제 차보다 훨씬 젊어졌습니다. 또한 넉넉한 트렁크로 교회 사역에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며, 다시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자이온CC와 뉴자이온공동체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부으심과 운행하심이 넘치게 하소서
2. 대양주총회에서 결혼주례사 총무직을 수락했습니다. 호주 정부와 잘 협력하여 사역하게 하소서
3. 아직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사례비가 책정될 수 있게 하소서.

라원준(김보령) 드림

후원방법 우리은행 001-012734-02-001 예금주 라원준